

“나는 오빠 널 위해 떠나는 거야

.....

오빠가 매일 일 때문에 허리를 굽히고 의지할 데 하나 없는 두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걸 봐왔으니까, 그런 오빠를 위해서.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도, 오빠가 우리에게 베푼 것보다 백배 천배로 돌려주기 위해서야. 그정도 돈이면 오빠의 친절에 보답이 될까? 출생에 대해 말한 건 뭐야? 아! 나한테 아직 오빠라는 존재가 주어질 수 있다면, 내가 오빠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할 것 같아? 오 폴! 오오 폴 오빠! 오빠는 나한테 그냥 오빠 이상으로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이야! 오빠를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또 밀어내느라 내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알아! 하늘이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줄 수 있을 때까지, 내가 나 자신과 떨어져 있을 수 있게 오빠가 날 도와줬으면 했어. 이제 내가 남든지 떠나든지, 내가 살든지 죽든지, 오빠가 원하는 대로 해. 부덕한 딸이라고 하라지! 오빠의 애정 표현은 뿌리칠 수 있었지만, 오빠의 고통만큼은 견딜 수 없어.”

이 말에 폴은 비르지니를 품에 안고, 그녀를 꼭 끌어안으면서 우렁찬 목소리로 포효했지.

“비르지니와 같이 간다. 어떤 것도 나를 그녀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.”